

Korean Association of Research and Charity for Craniofacial Deformity

#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열번째호

# 10

삼남병원  
대한정보통신  
얼굴성형정보연구소  
Korean Association of Research and Charity for Craniofacial Deformity

# Newsletter

www.goodface.net

# KARC

발행인: 정필훈 / 편집인: 김은석 / 전화 02-740-8725 / 팩스 02-745-3477

**Cleft Lip Charity Operation in Philippines**  
Aug 19 ~ Aug 28, 2011 Baguio General Hospital

KARC  
Korean Association of Research and Charity for Craniofacial Deformity

Sponsor | KOSDAQ 코스닥협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DCWMA

**미소사랑**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

코스닥은 함께 나누는  
사회만들기에 앞장섭니다.

일차: 2011. 5. 30(월)  
장소: 레이크사이드CC  
주최: 코스닥협회  
방송: J Golf 매일경제  
후원: KBS 후원부대, KOSDAQ, U1media, 매일경제, PRGR, YeArk

**제21차 해외 무료수술 봉사로 필리핀 바기오를 다녀오다.**  
21명 수술, 2명 치료, 바기오시립병원, 2011. 8. 19 ~ 8. 28  
(관련소식 p6~14)



수술이 끝난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이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미소사랑 화이팅!!! 미소사랑후원회와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에서는 올해도 이들이 있는 필리핀 바기오로 두 번째 의료봉사를 다녀 올 계획으로 있다(2012. 7. 7 ~ 7. 16) 많은 후원 바랍니다.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는 정필훈 이사장(사진 중앙)과 코스닥협회 노학영 회장(사진왼쪽)과 초대회장인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관련소식 p2~5)



미소사랑 후원금 첫 번째 수혜자인 이세명 어린이를 안고 기념 촬영하는 정필훈 이사장 (2006년 수술 집도의)과 어머니, 코스닥협회 노학영 회장(리노스 회장)



# 제6회 안면기형환자 수술비 마련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 개최



##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 개최

2011년 5월 30일 사단법인 얼굴성형정보연구소 부설기관인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이사장 정필훈,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사진에서 제일 하단 오른쪽 네 번째)와 그 외 후원단체를 위한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가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코스닥협회(회장 노학영)는 2006년 4월 '미소사랑후원회'를 발족하여 저소득층 안면기형아동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진행해 오다가 여러 사회복지 단체들의 후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에 행사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코스닥 CEO 및 초청인사 72명, 연예인 41명, 여자프로골퍼 35명을 초청하여 총 148명이 자선대회를 빛나게 하였다.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는 코스닥협회가 주최하고 유원미디어와 중앙방송(J-Golf)이 TV협찬 주관하였으며 KBS텔런트극회와 KLPGA, 매일경제가 후원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정필훈 이사장과 기획이사인 아주대학교 정연훈 이비인후과 과장이 저희 후원회 대표로 본 행사에 참석하였다.



- 1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에서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정필훈 이사장이 코스닥협회 노학영 회장과 박기석 초대회장으로 부터 자선골프대회 수입금(후원금)을 전달 받고 있으며...
- 2 관련 코스닥협회 임원 여러분들이 함께 축하, 기념 촬영에 임해 주셨다.
- 3 이에 보답하는 답례 인사를 정필훈 이사장이 미소사랑후원회 회원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
- 4 미소사랑 박기석 초대회장이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의 무궁한 발전과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미소사랑후원회 화이팅!!!





##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에서 희망의 미소를 위한 시타를 하는 임원과 회원들



시공테크 박기석 회장, 리노스 노학영 회장



솔브레인 정지완 회장, 서울대학교 정필훈 교수



탤런트 이순재님, KBS탤런트극회 박철용 회장



J-Golf 권택규 대표이사, 매일경제 김세형 논설실장



아모텍 강병규 회장, 피에스케이 박경수 대표이사



탤런트 김영철님



탤런트 김 청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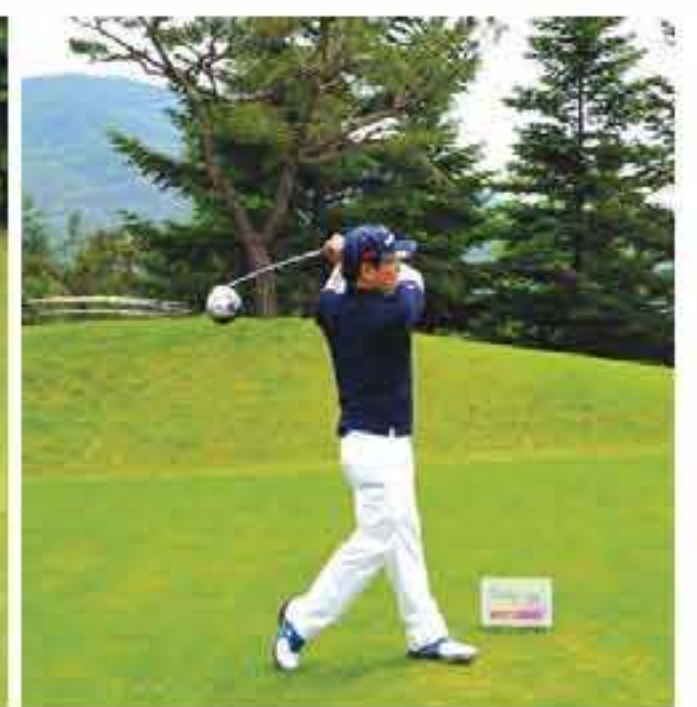
탤런트 김형자님



탤런트 남일우님



탤런트 안문숙님



탤런트 이한위님

안면기형아동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가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였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사랑후원회,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화이팅!!!

##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 행사 사진 모음



제1조 노학영 코스닥협회 회장,정세진님, 권영미 프로, 정필훈 한국얼굴기형환자 후원회 이사장(좌로부터)



제19조 서보미 프로, 탤런트 이순재님, 박기석 코스닥협회 초대회장, 김재철 에 스텍파마 대표이사



제35조 이상백 대아티아이 부사장,손혜 경 프로, 정연훈 아주대 교수(한국얼굴기 형환자후원회 이사),이경영님



미소사랑 자선골프대 회를 빛내 주시기 위 해 협찬해 주신 기업 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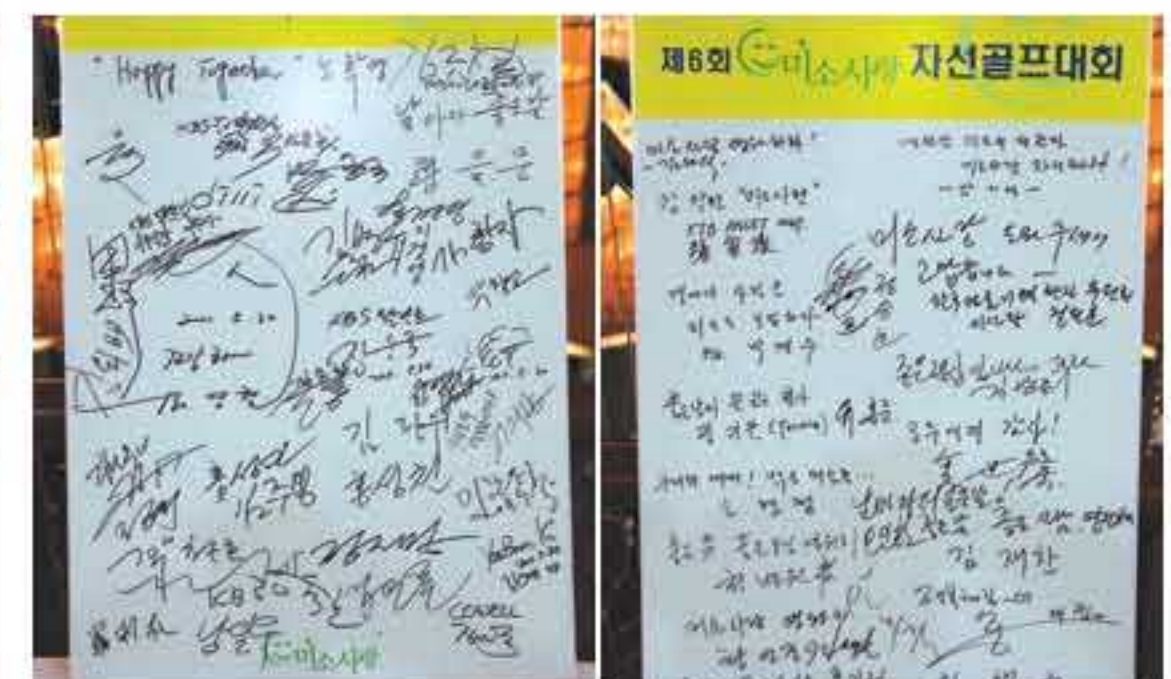
매년 자선골프대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는 탤런트 김영철님(중앙)



노학영 코스닥협회 회장으로부터 공노 패를 받고 있는 탤런트 박철용님(좌)



자선골프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 해 주신 초청 인사들.



행사에 참석해 주신 회원들의 미소사랑에 대한 희망 메세지들...미소사랑 영원히♡



## 미소사랑 후원금으로 수술 받은 첫 번째 환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1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에서 전달 받은 후원금으로 첫 번째 수혜를 받은 이세명 어린이(2006년 5월 17일 수술, 당시 생후4개월, 구순구개열)는 이제는 어엿한 아름답고 귀여운 초딩이 되었습니다. 수줍어 할 줄 알고 애교도 펴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2011년 5월 30일, 용인 레이크사이드클럽)에 찾아 주어 더욱 더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미소사랑후원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선행사가 매년 열려 다른 아이들에게도 많은 후원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이세명 어머니의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1 초대 코스닥협회 박기석 회장이 아기를 안고 있으며 아이 엄마가 참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

2 아이 가족과 함께한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정광훈 사무국장(왼쪽).

## 미소사랑 후원금으로 지원 받은 필리핀 아이도 이렇게 밝아 졌습니다!

니카는 심한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난 11세의 소녀입니다. 밖에도 나오기를 꺼려하던 니카는 어느 날 동생의 손을 잡고 다일비전센터를 찾아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차를 타 본적이 없던 니카는 아름다운 미소를 찾기위해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다일공동체 김혜경 목사(왼쪽 아래 니카를 안고 있는 분)의 손을 잡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21일 필리핀 의료봉사를 온 정필훈 이사장을 만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미소사랑후원회를 감사하며 '미소사랑, 사랑합니다' 라는 영상과 사진을 보내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필훈 이사장(왼쪽 끝)을 찾아온 니카와 김혜경목사, 그리고 필리핀 치과의사협회 직원과 협회장(오른쪽끝)



수술을 받은 니카가 엄마와 함께 행복한 미소로 의사선생님께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 행복합니다.



1



2

1 니카의 아름다운 변화, 행복합니다. I LOVE 미소사랑

2 이제 간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니카와 동생.





## 2011~2012년도에 미소사랑 후원금으로 수술받은 국내 환자들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술 받은 환자는 총55명인데 그중에서 해외 봉사시 수술받은 환자 47명을 제외하면 국내 환자는 8명이 아름다운 미소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 중에서 윤하은 아린이는 2007년도에 접수하여 금년에 와서야 본 후원회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정형외과 등 타과에서 12회 걸쳐 수술을 받아 왔고 이번에 13번째 수술로 얼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마침 SBS 희망TV에서 이번 수술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나머지 검사비와 진료비는 미소사랑 후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다음번 수술시에는 미소사랑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2009년도 접수한 이○주와 양○영 학생은 수술전 교정을 마치고 양악수술을 받아 정상인과 닮은 얼굴을 갖게 되었다. 미소사랑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용돈을 모아 후원금으로 기부하고 있는 아름다운 학생들이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두 환자(반안면왜소증), 김○준 환자(크루준증후군), 이○정(크루준증후군), 서○린(구순구개열)환자들이 이번에 수술 및 진료를 받았다.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수술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 윤하은(2005년생, 여, 증후군가정) / 인천시 서구(2007년접수)
- 에이퍼트증후군
- 안면도출수술(13번째수술, 미소사랑 수술비 일부지원, 나머지 수술비는 방송모금으로 지원, 그동안 손가락 분리수술 등 12회 수술함)
- 2012년도 어린이날 "희망TV SBS" 방송(20120504, 2부)



- 이○주(1989년생, 남, 부자가정)
- 충북 충주시(2009년접수)
- 구순구개열
- 1차교정후 양악수술(전액)



- 양○영(1993년생, 여, 기초생활수급자가정)
- 경기도 의정부(2009년접수)
- 구순구개열
- 1차교정후 양악수술(전액)



- 정○두(1968년생, 남, 독신(고시원생활))
- 서울 노원(2012년접수)
- 반안면왜소증
- 안면수술(일부지원)

## 2012년 미소사랑 후원회 결산보고



2006년 4월 17일 제1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부터 작년 제6회 미소사랑 자선골프대회(2011. 5. 30)까지 후원금 3억 2천여만 원으로 현재까지(2012. 5. 25기준) 총 82명에게 86회 수술을 해 주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두웠던 과거 얼굴이 밝은 미소 띠는 현재의 얼굴로 변함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은 감추고 살았던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며 스스로 모은 돈으로 비슷한 이웃을 돕기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 수술해 준 환자들에 대한 수술 내용별로 분류한 표입니다.

수술 지역	합계	구순구개열	크루준증후군	트레처콜린증후군	에이퍼트증후군	무턱, 턱관절, 부정교합, 주걱턱	인공와우 삽입	기타 얼굴기형	비고
국내	39	17	7	2	4	4	4	1	
해외	47	27	0	0	0	0	0	20	네팔, 필리핀
총계	86	44	7	2	4	4	4	21	총82명에 86회수술



## 2011년(필리핀의료봉사)에 미소사랑 후원금으로 수술 받은 환자들 수술전/후 사진 모음(2011. 8. 22 ~ 8. 25)



미소59, 샤르만, 여, 13m

미소60, 라모스, 남, 15m

미소61, 유진, 남, 3y

미소62, 안쉬리나, 여, 9m

미소63, 제릭, 여, 3y



미소64, 크리스티, 여, 13y

미소65, 빌리, 여, 19y

미소66, 칼마탐무, 남, 13m

미소67, 니카, 여, 11y

미소68, 조포스토, 여, 3m



미소69, 카엘, 남, 5y

미소70, 메히카, 여, 12y

미소71, 니겔, 남, 4m

미소72, 제랄딘, 여, 6y

미소73, 로리마크, 남, 3y



미소74, 크리스티, 여, 13y

미소75, 빌리, 여, 19y

미소76, 레이, 남, 2y

미소77, 셀아, 여, 22y

미소78, 체리안, 여, 9y



미소79, 나탈리엘, 남, 2y



수술후 미소67니카/미소69카엘

### 제21차 필리핀 무료수술봉사 활동

- 2011. 08. 19 ~ 2011. 08. 28
- 필리핀 바기오 시립병원
- 수술 21명, 치료 2명, 포기 1명(2012년 수술예정)
- 후원/협찬 : 미소사랑후원회, 한국얼굴기형환자 후원회, 다이나믹 필리핀선교지부
- 필리핀 의료봉사팀원(13명)으로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정필훈 이사장(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의료봉사팀단장), 가톨릭대학교 이원 교수, 안태민 간호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전임의 박주영, 정한울 선생, 김수호 선생, 박해정 간호사, 박사과정 김혁수, 치의학대학원 졸업반 홍준희 학생과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정한솔 학생, 정예솔 학생, 김철규 학생 그리고 정광훈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 필리핀 의료봉사에서 도와주신 분들



필리핀 치과의사협회 회장(우)과 악수하는 정필훈 후원회 이사장.



박정배 목사가 바기오 시장(우)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바기오 시립병원의 병원장(좌2)과 담소를 나누는 의료봉사 팀원들.



환자 모집과 스케줄 관리 등을 해 주신 오병갑 목사부부(좌1,2), 박정배 목사부부(좌3,4), 이원, 정필훈 교수, 강연희 권사.



의료봉사의 모든 스케줄과 허가 관계를 맡아 해 주신 박정배 목사 가족, 이은실 사모(중)와 딸 박소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봉사팀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신 행복교회 황철중목사가 식사 기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실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 의사(Dr. Joy 사진앞중앙), 간호사들과 함께한 정필훈 교수와 이원 교수(뒤중앙).



늦은 저녁시간에 식사준비를 해주신 유성숙 목사(빨간옷)와 한인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입니다.



의료진 허가와 병원 사용 등 많은 지원을 해 준 필리핀 적십자와 치과의사협회, 다이나믹 필리핀 선교지부에 감사드립니다.

### 필리핀 바기오 의료봉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다음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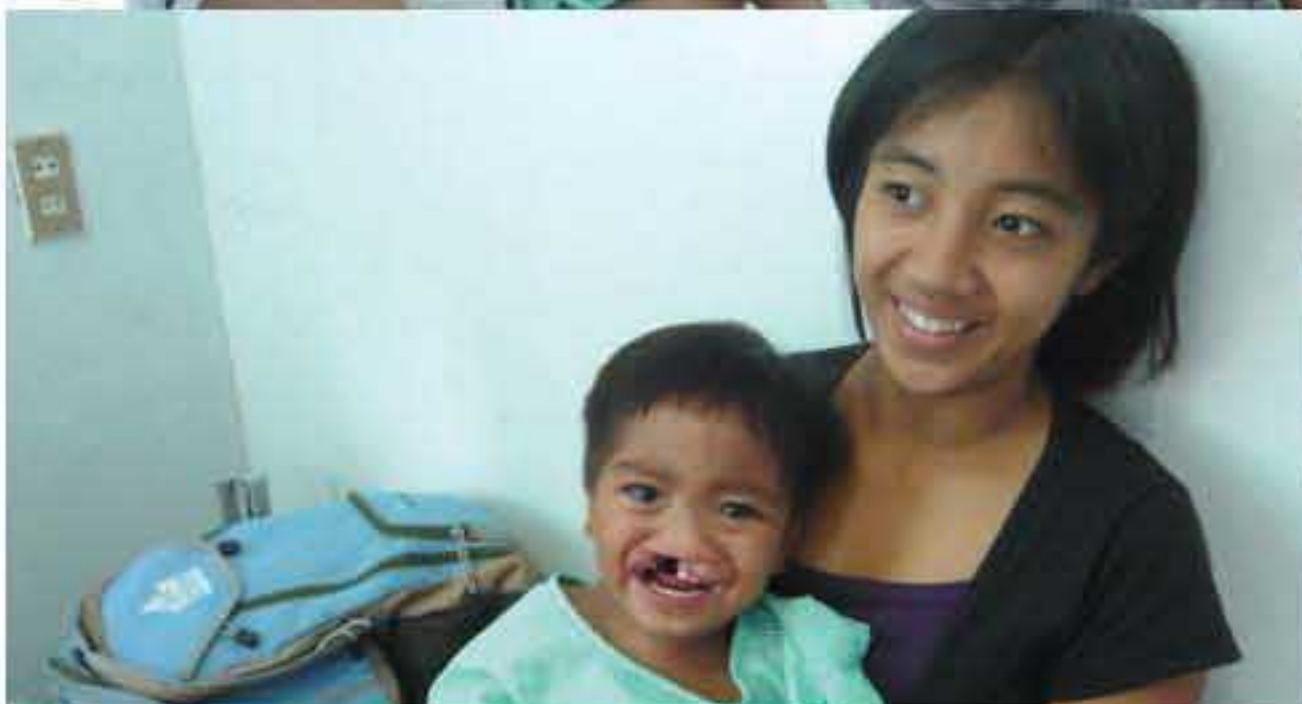
- 필리핀 적십자 총재, 치과의사협회 회장, 바기오 시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 바기오 시립병원 병원장 외 관련 의사선생님 및 간호사,
- 다이나믹 필리핀 선교회 박정배 목사-이은실 사모-딸 박소연
- 오병갑 목사-김춘순 사모, 이원형 전도사-강연희 권사
- 황철중 목사, 유성숙 목사, 이종연 목사, 이성수 목사, 김혜경 목사
- 필리핀 바기오 한인 교포 여러분
-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제2기차 필리핀 의료봉사팀

감사합니다.

## 수술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가족들



먼저 수술을 하고 나온 아이들을 바라보고 안도의 숨을 쉬는 가족들도 있고 아직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이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역할을 김춘순 사모(4번째사진)가 앞장섰다. 이제 수술이 기다려 진다고 말하는 환자 가족들의 표정이 매우 밝아 보인다. 모두들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다시 환생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수술 시간을 기다린다.





## 제21차 해외 무료수술봉사를 필리핀 바기오로 다녀오다

대한민국의 우방국가, 6.25 사변 시 우리나라를 도와 줬던 필리핀, 이제는 우리가 필리핀을 도와주기 위해 2011년 8월19일 필리핀 바기오로 얼굴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구순구개열 아이들을 수술해 주기 위하여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봉사팀 13명이 인천 공항을 출발 하였다. 정필훈 이사장(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외 12명의 봉사팀은 필리핀 바기오 시립병원에서 2011년 8월28일까지 9박10일 동안 21명 수술, 2명 치료를 해 주고 내년을 약속하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수술 받은 많은 필리핀 아이들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영상편지와 후기 사진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다. 물론 현지 바기오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정배 목사님과 한인 교포들의 많은 지원과 협찬으로 성공적으로 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번 2012년도 7월초에 떠나는 제22차 해외무료수술봉사도 작년과 같이 미소사랑후원회의 후원으로 필리핀 바기오의 얼굴기형환자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선사해 주기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미소사랑후원회에 속해 있는 코스닥협회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



3



4



5



6



7



8



9

1 2011.8.12에 의료봉사에 필요한 물품과 환자 정보, 전체 스케줄 등을 검토하는 사전 모임을 가졌다. 일주일 후 출발이다.

2 2011.8.19 저녁, 인천공항에서 민반의 준비를 하고 출국 전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는 출발 기념촬영을 가졌다.

3 2011.8.20 0시15분에 필리핀 클락공항에 도착하여 밤새 숙소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지에 계시는 박정배 목사가 마중 나왔다.

4 병원이 있는 바기오로 가기 전에 산 페르난도에서 하루 묵기로 했다. 환자들의 예진과 수술 스케줄을 잡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5 내일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 미리 현지 적응을 한 후 바기오로 이동을 하기위하여 18나한이 있는 사원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봉사팀원들.

6 드디어 바기오 시립병원에 도착하였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신통일을 해야 한다. 단 한건의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7 병원관계자들과 바기오에서 협조해주는 박정배 목사님과 필리핀 치과협회 회장(아래우측두번째), 정필훈 이사장 외 봉사팀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8 수술을 받기위해 술전검사를 마친 아이들에 대한 예진이 시작되었다. 박정배 목사가 현지어 따갈로그어를 통역해 주고 있다.

9 아이들의 예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2명의 아이들이 예진을 받아서 19명이 수술을 받았다. 2명 치료, 1명은 2012년으로 미뤘다.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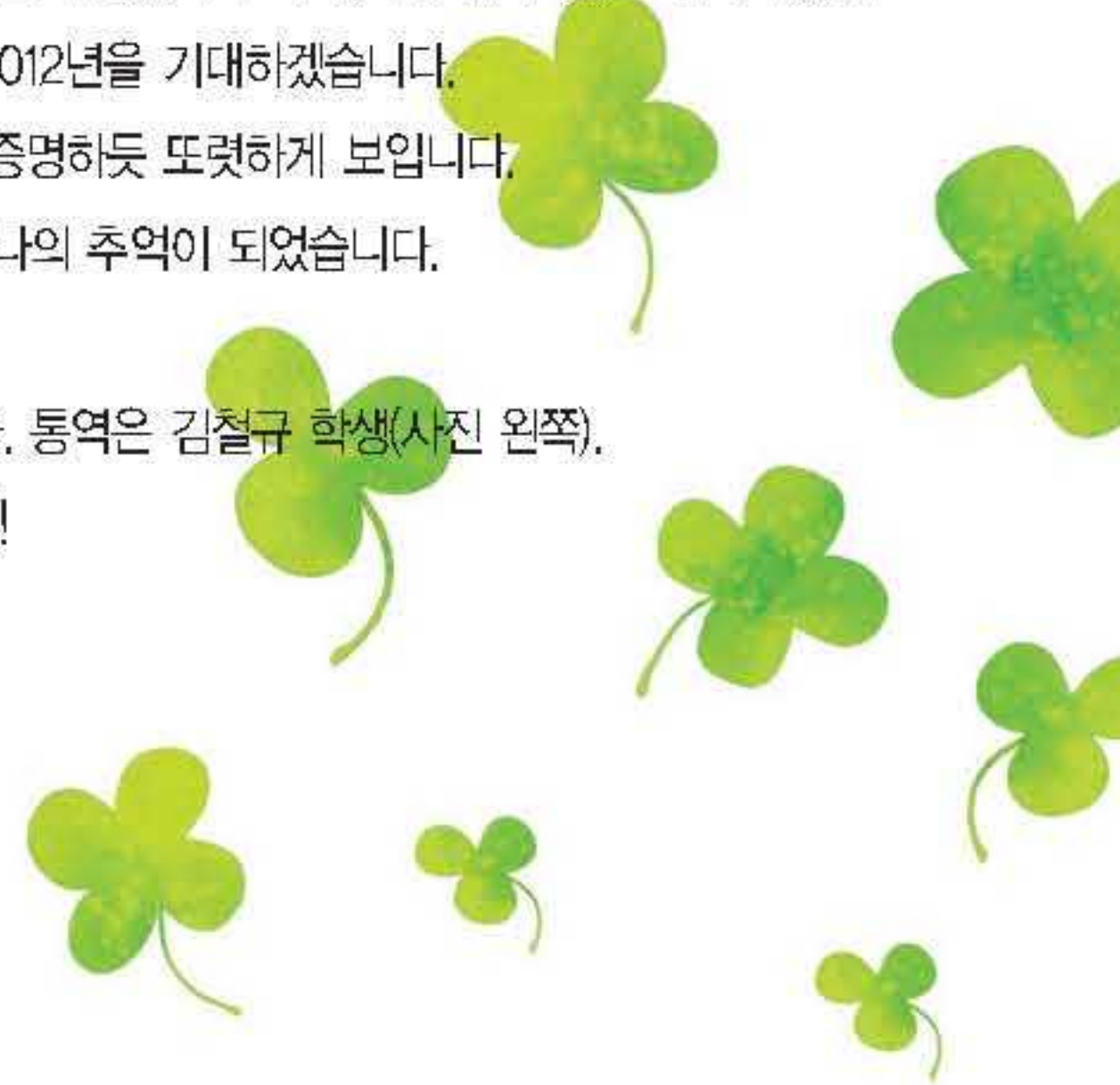


20



21

- 10 정필훈 이사장(좌)과 이원 교수(우)의 집도를 시작으로 5일간의 수술 대장정의 길이 시작되었다. 총19명의 환자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 11 필리핀 바기오시립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필훈 이사장과 함께하였다. 수술 후 환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을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였다.
- 12 수술 3일째 이제는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다.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고 담당 의사들과 상의도 하면서 최상의 수술을 하고 있는 팀원들, 현지 성형외과 의사(사진 왼쪽 앞)도 참여하였다.
- 13 마지막 환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든 수술실 관련자 선생님들과 봉사팀이 모여 그동안의 고생을 미소로 날려 보내면서 찡찡... 2012년을 기대하겠습니다.
- 14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봉사 사상 밤 11시30분까지 수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필훈 이사장이 들고 있는 시계가 신기록을 증명하듯 뚜렷하게 보입니다.
- 15 수술시간 신기록을 세운 밤에, 밤 12시가 다 되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꿀맛이었습니다. 기다리신 교포 분들에게 죄송할 뿐...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 16 수술을 마친 아이들에 대한 회진도 아침, 저녁으로 체크를 합니다. 건강상태, 수술상태, 등 모든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정필훈 이사장.
- 17 2011. 8. 25 저녁6시뉴스에 방영할 필리핀 ABS-CBN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봉사 목적과 의의, 수술하는 모습 등이 방영되었다. 통역은 김철규 학생(사진 왼쪽).
- 18 ENT ROOM에서 수술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필리핀 한인 교민 가족의 향후 의사 지망생들. 아~ 너, 봤어- 신기하다!!!
- 19 모든 수술 일정을 마치고 수술 받은 환자 가족들과 즐겁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정필훈 이사장.
- 20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수술받은 환자와 그의 가족들과 봉사팀원들이 함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김치...치즈.
- 21 클락 공항을 떠나면서 그동안 고생한 박정배 목사님과 내년을 기약하며 기념 촬영하는 봉사팀원들.





# 수술 받는 아이들과 행복해하는 그의 가족들





필리핀 의료봉사 후기

바기오에서의 진료를 마치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이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의료봉사 마지막 날, 짐정리를 마치고 호텔방의 책상에 앉아 태풍으로 인해 쏟아지는 폭우를 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걱정합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이후 지난 일주일동안 진행이 잘되지 않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던 저의 생활신조인 '과정을 즐기자' 를 다시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만 15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인 바기오시를 내려가려면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도로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쉽사리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제 마음에도 태풍이 몰아칩니다. 설마 이 비와 태풍이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이 날만 특별하게 휘몰아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필리핀은 제가 처음 와 본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나라가 크고 다양한 모습을 가져서 일까요. 다시 온 곳 같지 않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중략" 낙후된 도로와 시설들 그리고 병원의 기기들은 이 나라가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이 곳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결코 선진국 못지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단시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관습과 전통은 분명 있습니다. 이곳이 한때는 우리보다 잘 살던 곳이었음직한 모습을 언뜻언뜻 볼 수 있었으니까요. 생활환경은 우리보다 떨어지나 생각하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은 필리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즐거움입니다. 특히나 정교수님과 함께하는 의료봉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봉사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큰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그런 즐거움으로 인해 정필훈교수님께서 의료봉사팀원으로 제안해 주실 때 설레임과 기쁨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작은 талан트로 적은 노력을 했을 뿐인데 봉사팀의 일원이 되어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들만의 문화를 보고 즐기고 그들과 따뜻한 교류를 하며 자그마한 봉사에 대한 감사로 인해 큰 기쁨을 느껴 보는 것은 항상 교수님께서 불러주시심을 감사드리고

필리핀 바기오 종합병원 구순구개열 자선 수술활동을 다녀와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임의 박주영



2011년 3월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전임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얼굴기형환자 후원회에서 어디로 진료봉사를 떠나실까 내가 먼저 궁금해 한 적이 있었다.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 어느덧 여름이 다 지나갈 무렵, 정광훈 국장님께서 필리핀에 구순구개열 환자가 많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2003년 1월 처음으로 정필훈 교수님을 따라 파키스탄 카라치로 진료봉사 여행을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파키스탄, 케냐, 인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필리핀... 단 한 번도 같은 곳으로 진료봉사를 가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봉사를 떠날 때마다 두 가지 갈래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이번에 방문할 도시와 병원은 또 어떤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보호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울 수 있을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필리핀 바기오 종합병원은 처음 방문한 병원이라는 점에서 여태까지 방문한 곳 중 가장 현대화된 의료시설과 병원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인도 오리샤주나 키르기스스탄 오쉬에서 경험했던, 너무 낙후된 의료시설이나 전신마취의 미숙함 같은 위험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바기오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이 가질 수 있는 세분화된 전문 진료과목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특수 클리닉과 응급실도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선수술 활동과 같은 정규업무 외의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현지 병원의 조직화된 업무를 미리 양해를 구해서 필수적으로 취소해 놓아야 했다는 점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임시 필리핀 치과 의사 면허가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될 뻔 했다.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

여지간하면 바로 교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유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도 조금 부족한 준비와 오해로 인해 수술을 매끄럽게 시작하지 못했고 수술하는 기간 내내 병원 측과 있었던 원지 모르는 불협화음이 우리 팀을 괴롭혔지만 그 상황을 묵묵히 이겨내 온 같이한 팀원들과 해결을 위해 열심히 수고해주신 박정배 목사님(앞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 그리고 저희들을 항상 챙겨주신 오병갑 목사님 내외분, 행복한 교회의 황목사님, 그분들 덕분에 맛있는 저녁과 바기오를 알아갈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또한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이 되었던 현지 병원의 의사인 Dr. Gene 과 뚝뚝하며 사려 깊은 Dr. Joy(뒷줄 두 번째)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일이 태풍으로 인해 큰일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서로 갈등도 크게 없었고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나서 내려오다 다른 길로 돌아왔지만 모두들 무사히 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 저녁을 맛있게 먹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진료와 수술로 인해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었지만 잔잔한 감동이 아직도 여운처럼 가슴 한 켠 남아 있습니다. 우리팀이 수술을 했던 환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건강히 퇴원을 했겠지요. 수술 받고 나서 예뻐진 모습들의 환자들을 떠올리며 다음번 의료봉사를 기대해 봅니다.

팀으로 같이했던 모든 분들과 바기오에서 저희를 위해 운전을 해주시고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모든 분들, 우리가 수술을 했던 환자들 모두, 사랑합니다!!!



는 의료 허가증 발급에는 깐깐한 여러 절차와 시간이 걸려 사실은 우리팀이 필리핀에 도착했을 당시에 허가도 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정필훈, 이원 교수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으나, 다이내믹선교회의 박정배 목사님과 현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의료 활동 중에 허가문제가 처리되었고, 환자들이 퇴원할 때까지 의료 활동은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



사실 종합해보면, "중략" 우리 팀은 수술방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그리고 노련하게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위한 자선 수술활동에 열중했다. 우리 팀의 이러한 저력은 단장인 정교수님의 리더십과 이원 교수님의 부드러운 융화력, 그리고 밤새도록 열심히 집일을 맡아서 해 준 정한울, 김수호, 김혁수 선생님들의 성실함, 박해정, 안태민 간호사님들의 강인한 체력, 한솔, 예솔, 홍준희 학생들의 귀여운 유머와 노력하는 모습 등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데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일을 하고 계신 정광훈 국장님도 계신다. 병원을 떠나는 마지막 날, 고맙다며 다음번에 또 수술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필리핀 환자 보호자들을 보며 이번 필리핀 자선봉사 수술활동도 성공했음을 느꼈다. 힘들지만 늘 해외진료봉사를 따라 나서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 2011 필리핀 바기오 시립병원 구순구개열 자선 수술활동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김수호



### 시작하며

여름 내내 날 더운 줄 모른 채 한창 바쁜 병원 근무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데지부처럼 보내던 어느 날, 정필훈 교수님께서 함께 필리핀으로 의료봉사를 가자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답답했던 마음속으로 한 줄기 서광이 비춰짐과 동시에 머릿속은 한결 더 복잡해졌다. 해외에 나가보니 10년이 넘었으며, 필리핀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진료 봉사 준비를 위해 막내인 내가 준비할 것도 얼마나 많을지 걱정이 앞섰다. “중략”

### 2011년 8월 19일 금요일 맑음

인천 공항에 모인 것은 저녁 6시. 6시 30분부터 단체로 티케팅하고 단체 수하물을 부치기 시작했는데 총 인원 13명, 총 11개 분량의 각종 수술기구 및 단체 물품과 개인 짐들을 수속하는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중략” 단체 수하물을 꼼꼼히 챙긴 뒤 마중 나와 주신 목사님 차에 짐을 옮겨 신고 다섯 시간 정도 험한 밤길을 달려 바기오 가기 전 하루 머물게 될 산 페르난도에는 현지 시간 오전 5시 30분경 도착하여 'Coconut Grove'라는 조그만 리조트에 일단 짐을 풀었다.

### 2011년 8월 20일 토요일 맑음

가볍게 눈을 붙이려 했으나 잠도 안 오고 어느덧 창 밖으로 환한 아침 해와 함께 새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다. 리조트 앞이 바로 바닷가로 현지 일정 조율 및 숙소 잡아주신 박정배 목사님의 세심한 배려가 감사했다. “중략” 그나마 영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동네라 간단한 의사소통은 괜찮았고, 통역 겸 자원봉사 학생들이 있어서 음식 주문도 no problem, 음식 맛도 not bad. 가게 안의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들이 인상 깊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식후에 “중략” 중국식 사원인 Ma-cho temple에 도착했다. 같은 18나한이 지키는 불교 사원에 8괘 문양과 도교적인 문구가 새겨있고, Mama Ma-cho라는 어부들의 수호신이라는 민속신앙이 결합된 다채로운 사원이었다. 이렇게 밖에 나와 눈으로 직접 보고 발로 걸어 다니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배우는 것이 또다른 삶의 즐거움인지라, 우리도 병원 안에만 있지 말고 해외 진료 봉사나 학회 참석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배려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중략” 숙소로 돌아와 각자 정리 후 밤 10시쯤 모여 회의 시작. 이번 의료봉사가 어디까지나 선교가 아닌 charity mind에서 비롯된 순수한 봉사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각자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역할 분배, 카메라 조작, 문서 작업 등에 대해 재차 토의했다. 잠깐 풀어놓았던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고 잠을 청했다.

### 2011년 8월 21일 일요일 맑음



“중략” 계속해서 험하고 가파른 커브길을 오르고 올라 오후 2시경 바기오 내 Burnham suite hotel에 도착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방을 몇 개 통합하고 짐 풀고 오후 3시경에 바기오 시립병원에 도착했다. 병동 담당 주치의와 인사를 나누고 바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외과 동쪽 병동에서 바로 예진을 시작하였다.

우는 아이들은 과자로 달래가면서 15명의 환자들을 문진하고 사진 찍고 차팅하였다. 음식 섭취가 어려워 영양상태가 불량해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아가 3명이었고 그 중 한 명은 심장 기형도 발견되어 추가적인 work up이 필요한 상태였다. 정필훈 교수님

께서는 다른 나라 환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wide하고 어려운 case라고 말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직접 접해보지 못했던 primary cleft 환아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 가여웠고 새삼 이런 해외 봉사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저녁 6시 30분에 Hill station이라는 식당에서 바기오시립병원 현지 의사들과 정식 모임을 가졌다.

“중략” 앞으로 환자 수술 스케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는 것이 관건이었다. 흔치 않은 기회인만큼 최대한 많이, 안전하게 수술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했다.

숙소로 돌아오기 전에 박 목사님이 운영하는 행복교회에 들러 3명을 추가 예진하고 저녁 8시 30분경 숙소로 돌아와 다음날 수술 환자들의 수술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중략”

###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맑음

아침 7시 30분에 숙소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8시 15분에 병원 출발, 숙소까지는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병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다시금 상호 협력을 다짐했고 그 동안 수술방 세팅은 최종 완료되어 오전 10시 정필훈 교수님의 지도하에 첫 번째 수술이 시작되었다. 첫 날 전신 마취하에 총 4명의 환아들에게 cheiloplasty가 진행하였고, unilateral CLP가 세 명, bilateral CLP가 1명 이었다. 간단한 case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wide하고 어려운 case 들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전신마취를 진행해주는 현지 마취과 의사들은 꼼꼼했고 수술방 시설은 나쁘지 않았지만 1개만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못내 아쉬웠다. “중략”



### 2011년 8월 23일 화요일 맑음

오늘은 전신마취로 총 4명의 환아들에게 cheiloplasty 3건, palatorrhaphy 1건을 진행하였고, 마취과 의사 없이 수술방 하나를 더 확보하여 국소 마취하에 palatal fistula closure를 진행하였다. “중략” 추가로 온 환자 1명을 예진했고, 저녁 9시 30분까지 수술이 진행되어 예정된 환자들은 모두 다 잘 마무리되었고, 고맙게도 현지 교민분들이 늦게까지 기다리시며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미안함과 동시에 너무 감사했다. 숙소로 돌아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지친 몸을 쉬었다. 확실히 고산지대라서 쉽게 피로가 오는 듯 했다.



### 2011년 8월 24일 수요일 맑고 갸

오늘은 총 6건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수술방도 2개를 사용할 수 있었고, 마취과 의사도 2명이 확보됨에 따라 전신마취로 전부 진행되었고, 3건의 cheiloplasty는 전부 다 wide한 case인데다, 2건의 palatorrhaphy 중 1건은 도대체 이 넓은 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걱정스러운 case들. 그중에 정필훈 교수님 지도하에 lip scar revision을 하게 되었다. 기존에 Millard 방법으로 수술을 받았던 6세 여자아이였는데, 여기저기 길어도 안 나오고 역시나 만만치 않은 case. 첫 수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정 교수님께서 rhinoplasty까지 하고 나니 인상이 확 달라졌다. 중간에 필리핀 현지 방송에서 취재가 나와 우리 의료봉사 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인터뷰, 환자 수술 장면을 참관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다음날 8월 25일 필리핀 ABS-CBN 뉴스에 저녁 6시 뉴스(우리나라의 9시 뉴스 격)에 소개되었다고 한다.



이 날 예정된 모든 환자들을 소화하고 나니 수술이 끝나니 밤 11시 30분이었다. 다들 늦게까지 수술하느라 피곤하면서도 밝은 얼굴로 수술실 시계를 들고 인증 사진을 찍었다. 처음 이틀간 수술방 1개만 사용하느라 밀린 스케줄을 복구하려 우리 병원 못지 않는 강행군이었다. 직접 지도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피곤하실 테지만 흐트러진 모습 없이 모두를 이끌고 계셨다. 학생들도 환자 사진 찍고 중간 중간 정리하고, 다들 너무 열심히 참여하고 도와줘서 정말 한 팀이란 생각이 들었다.



2011년 8월 25일 목요일 흐림

수술이 예정된 마지막 날이다. 이날 폐렴으로 전신마취가 불가능했던 환자들의 국소마취 하 cheiloplasty 3건, palatorrhaphy 시행 후 lip scar revision도 원하는 환자들을 추가로 국소 마취하에 2건 진행하였다. 우측 귀 뒤쪽으로 양성 종양을 주소로 내원한 신환도 국소마취로 1건의 종물 절제를 시행하였다. 그렇게 진행된 수술은 총 6건. 2살 아들이 폐렴으로 소아과에서 전신 마취하에 수술 불가 결정을 받고 내내 말 한 마디 없이 슬픈 얼굴로 회진 때 우리를 바라보던 19살 어린 엄마는 이날의 마지막으로 국소 마취하에 성공적으로 수술이 완료되자 그제서야 우리와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슴 한 칸이 찜하고 이렇게 봉사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한 기회라는 것을 느꼈다. "중략"

2011년 8월 26일 금요일 흐리고 비

이 날은 이번 주 내내 수술한 환자들의 최종 dressing 및 술후 경과를 보는 날이다. 9시 좀 넘어 시작한 회진 및 dressing은 11시 30분이다 되어서야 끝났다. 회진할 때마다 어린이들이 울음바다로 시끌벅적했다. 최종 술후 사진을 찍는 날이라 한명 한명 다른 날의 배 이상으로 꼼꼼히 속독하였고, 수술받은 모든 아이들과 어머니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내년엔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올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다시 볼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중략"

2011년 8월 27일 토요일 맑은 비

새벽부터 아무리 봐도 부족한 점이 많은 PPT를 붙들고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봉사

참으로 값어치 있는 봉사활동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4년 홍준희



첫째 날, 기대되는 마음을 안고 인천공항으로 8시50분 비행기를 타기위해 6시에 모였다. 4시에 집에서 출발하니 5시50분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학교 뒤편의 식당에서 뵈었던 친근한 분들이 보인다. 봉사에 뜻을 가지신 분들은 다들 선하고 온화함이 보이는 인상인 것 같다. 따스하게 교수님은 나를 맞아 주셨다. 캐논 초록색 가방의 사진기를 그때 내게 처음 건네 주셨다. 이 사진기를 여서 익혀서 좋은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에 정신이 없어서 다소 어리버리한 면이 많았던 듯싶다. "중략"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족한 내게 많은 분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주셔서 이나마라도 바뀌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까마득하다고 생각한다. 비행기 안에서 가는 길은 김수호 선생님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편하게 갈 수 있었다. 함께 독서등을 펴놓고 안 되는 공부를 하는 척도 하였다. 그러다가 깜빡 잠에 들었다 일어나보니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에 도착하니 날씨가 후텁지근했다. 시간은 한국보다 1시간 가량 늦어서 8시50분에 출발하여 4시간가량 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목사님이 우리를 맞아 주셨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도 우리들을 위해서 밤을 새우며 운전을 해주시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차가 흔들림에 따라 졸다 깨다를 반복하며 새벽 5시경 온몸이 뻑적지근하게 산 페르난도의 리조트인 코코넛 그로브에 도착했다. "중략" 박목사님께서 내일일정을 말하시면서 현지교회 방문 등을 말하셨는데, 정교수님께서 이번 팀의 방문의 목적이 선교가 아닌 봉사(charity)임을 강조하시면서 종교색이 짙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며 박목사님의 양해를 구하셨다.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며 봉사의 가치를 지켜내는 모습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풀같은 침침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누우면 바로 잠이 드는 나날들이었다. 그만큼 고단하기도 하였고, 중요한 일에 참여했기에 보람 있기도 하였다.

자고 일어나니 일요일이다. "중략" 아침 아홉시에 모여서 산페르난도의 코코넛그로브에서 차로 30분 남짓 이동을 한 후 필리핀 어느 시골마을의 예배당에 이르렀다. 주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였다. 주로 따분한 선교보다는 밴드를 이용해 흥겹게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고 사람들의 열기로 인해 예배당은 무척이나 후끈했다. 열광의 도가니에서 땀을 흠뻑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현지사람



기간 내내 도와준 홍준희 학생도 마지막까지 도와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허겁지겁 아침을 먹고 일주일간의 봉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PPT를 넘기면서 수술했던 환자 한명 한명을 되새겨봤고, 부족한 점들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필훈 교수님께서 최종 마무리를 해 주셨다. "중략"

맑은 날

출발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필리핀은 절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고, 빈부 격차가 상당히 크지만 각종 인프라가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었다. 교수님께서도 상황이 맞으면 내년에도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실 정도로 기존에 해외 진료 봉사 다녔던 나라들에 비하면 조건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이런 의료 봉사를 통해 해외에 우리 구강악안면외과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며 개인적으로도 너무 뿌듯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짧지만 결코 짧지 않았던 일주일이었다. 세상 모든 cleft 환자들에게 웃음을 나누어주는 그 날까지, 또 이런 소중한 기회가 내게 닿기를 희망해 본다.



들이 대접한 필리핀식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그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다가 저희들이 떠나고 난후 먹기 시작하는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 다시 차에 몸을 싣고 2시간 가량을 이동하니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복색이 점점 달라진다. 너무 더운 나머지 다소 험벗어 있는 사람이 많았던 해변기였던 산 페르난도와는 달리 긴 바지에 구두를 신은 한국과 다른 복색의 필리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어느덧 내려 보니 들던 대로 가을 날씨다. 반렘 스위트 호텔에 짐을 풀고 보니 시설도 도시답게 훌륭하고 깔끔했다. 마냥 쉴 시간은 없다. 바기오 제네럴 호스피탈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환자가 모여 있었다. 팀을 두 팀으로 나눠 간호사 두명 및 국장님은 가서 수술도구를 세팅하였고 교수님과 선생님들은 진료도구, 카메라 등을 챙겨서 차트를 만들기위해 병동으로 향했다. 앞으로 몇 번이고 지나다날 Surgery ward(east) 안쪽으로 가보니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필리핀의 전국 각지에서 바기오 시티로 몇 시간을 달려온 환자들이 걱정스럽기도, 기대되기도 하는 눈빛으로 우리들을 보고 있다. 어깨가 무거워진다. 예진은 본인이 느끼기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교수님의 지휘아래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예진차트를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고 환자의 주소를 기록하고 전신질환을 조사하고 예비진단을 적었다. 지금은 학생인 나에게도 앞으로 치과의사가 되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련의가 되어 이런 직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편 바기오 제네럴 호스피탈(BGH)의 인상은 시설이 한국과 같이 최고로 현대화 되어있진 않아도 갖출건 다 갖춘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주영 선생님은 의료봉사를 하시며 여태껏 다녀본 국가들의 병원과 비교 하였을 때 가장 시스템적으로 앞서있었고 한국의 웬만한 중소병원보다 좋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일천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만한 안목은 없었고 다만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 의대를 졸업한 의료진과 바로 옆에서 환자에 대한 상의를 하며 수술을 해본다는 것이 신기했다. 우리병원의 특성상 치과병원이 독립되어있어 항상



서면으로만 상담이 이뤄졌던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히 신선했던 점이였다. 어느덧 예진이 다 이뤄지고 저녁식사를 하였다. 현지 병원의 관계자 분들과 치과의사협회장(14p 사진 중앙)과 모두가 모인 만찬이 있었다. 지금까지 모인 환자분들과 또 우리 일행에 대한 소개, 봉사의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있





은 후 다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우리 일행은 호텔로 들어와서 다음날 있을 수술의 세미나를 가졌다. 나는 술자(operator)가 아니었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몇 마디를 들었다. 여러가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외부 상황 속에서도 학문의 전수와 진일보에 힘쓰시는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악안면구강외과학은 이만큼 발전해왔고 미래의 전망 역시 밝아보였다. 환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어떤 어떤 환자를 어떻게 수술

할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세미나 후엔 내일 있을 수술을 생각하며 방에 들어와 쓰러지듯 자게 되었다. 특히 혁수형이 배려해준 덕분에 편히 잘 수 있었다. 드디어 수술 첫째 날이다. 우리 의료진들은 환자분들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있을 동안 간호사분들은 수술방을 최적의 상황으로 정리해 놓으셨다. 한국에서 원내생으로 경험하였던 수술방 분위기는 항상 엄숙하고 다소 경직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곳 필리핀에서는 교수님이 때론 먼저 농담도 건네시며 부드럽게 따스하게 해주셨다. 물론 제때 제일을 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지적은 엄하셨지만 전반적으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첫째 날은 환자분들은 총 세분 수술을 받으셨고 모두 정필훈 교수님이 집도하셨다. 사실 저에게는 언청이 수술이란 것도 옵션베이션을 하는 것이 처음이기에 매우 신기했다. 교과서에서만 접해오던 비강과 구강이 개통한 환자를 보는 것이 처음이었고 또한 그것이 수술에 의해 다시 막히는 것과 얼굴형이 정상화 되찾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값어치 있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현지 교회분들이 준비해주신 도시락이 수술장 밖에 저희들을 위해 마련된 준비실로 공수되었고, 또한 모든 수술이 끝난 후에는 교회로 초대하셔서 한식 부페식의 만찬을 마련해 주셨다. 모든 일정이 끝나면 항상 박주영 선생님이 쓰시는 방에서 세미나가 있었다. 정확히 무슨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귀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보람은 있다. 방에 돌아오면 아젠 오늘 찍은 사진을 선생님들과 정리를 하고 몸을 씻고 쓰러지듯 잠에 들었다.

수술 둘째 날인 화요일부터는 월요일과 대체로 비슷하게 흘러갔다. 차이점은 아침에 부가적으로 전달 수술한 환자 상태 점검과 드레싱을 하였다. 점과, 수술이 좀 더 밤늦게 끝났다는 점이였다. “중략” 항상 소아에게 수술을 하거나 장시간의 수술을 할 때는 전신마취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교수님은 유연성 있게 국소마취로 해결 가능한 케이스를 선별을 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의료인력 배분을 하셨다. 국소마취 수술이 가능한 환자 선별에 이어서 의사결정과정 역시 나이, 수술의 종류 등의 정확한 근거에 의해 이루어 졌고, 배울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도 부분적으로 수술방을 빌려쓰는 방식으로 두 팀으로 나뉘어서 진료봉사는 계속되었다. 셋째 날에 특이했던 점은 저녁 11시가 되어서야 수술을 마무리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점이고, 교수님이 케이스를 선별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살아있는 학문을 전수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략” 오늘은 공항으로 이동하는 날이다. 어제 저녁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그런 외중에서도 밤을 샌 보람은 있었다. 김수호 선생님이 만드신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감격스러웠다. 여태까지 수술한 환자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각자 소감을 말하는 자리가 주어졌다. 그



후엔 짐을 싸서 차에 싣고 공항으로 이동하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깥에는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인원체크를 하고 난 후 승차하자마자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잠에 빠져들었다. “중략” 결국 우리들은 클락필드의 공항에 도착하여서 잠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구경을 하다가 4시간 가량을 기다린 끝에 한국행 o2708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중략”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정말 갈 길이 험난하고 멀고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노력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부족한 내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럼 이만 글을 마무리 해볼까한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Philippines- Baguio 를 다녀와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수술실 간호사 안태민



해발고도 1,500m의 코딜레아산맥 줄기에 있는 바기오는 연평균기온이 18°C를 유지해 필리핀 사람들에게 여름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지만 내에겐 생소한 곳이었다. 사실의료봉사가 아니었다면 생전에 가 볼 엄두도 내지 못할 곳이다. 모험심이 많고 어느 곳이든 적응을 잘하는 나는 일상을 벗어나 기대감을 갖고 열흘간의 긴 휴가를 내고 인천공항으로 갔다.

새로운 사람들의 만남이 낯설긴 하지만 모두들 밝은 미소를 띠우며 클락행 비행기에 탑승을 하였다. 그리고 3시간 30분 만에 필리핀 클락공항에 도착했다. 시간은 자정을 넘었다. 마중을 나온 박목사님을 만나 우리는 승합차에 서로를 끼어 앉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도로를 5시간반 정도 달려 산 페르난도에 있는 리조트에 도착했다. 필리핀 어린이들의 스마일을 찾아주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밤새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뿌듯했다. 오늘은 일단 리조트에서 휴양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천진난만하게 여유를 즐기는 중에 수술할 병원의 허가가 아직 안 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목적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일은 해결된 것 같았다. 정교수님께서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시며 봉사를 하시는데 그 만큼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해발고도 1500m에 위치한 바기오는 말 그대로 점점 산중에 있었다. 올라가는 길에 멀미가 나서 혼났다.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우리는 예진을 하러 바기오의 시립병원으로 갔다. 나는 수술장 정리를 하기 위해 곧바로 수술장을 둘러보았다. 수술실 분위기는 특유의 소독 냄새와 함께 열악해 보였다. 이곳에서 수술이 가능한 걸까? 의료자식은 있긴 한 걸까? 의문이었다.

현지인들은 모두들 반갑게 웃으며 맞이 해주었고, 질문도 많았다. 비록해외 의료봉사는 몽골에 이어 두 번째지만 OPERATING ROOM TECHNIQUE은 전 세계 공통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일하는 데는 문제없다. 수술실간호사의 merits가 아닌가 싶다. 우리의 비해 소독방법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ASEPTIC TECHNIQUE은 지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흥미롭다.

수술준비를 끝내고 교회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뷔페식으로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집이 멀어 교회에서 머무는 어린 소녀 환자와 엄마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녀의 엄마는 닭고기를 발라주며 밥을 먹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부끄럽지만 나는 1초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엄마의 심정은 얼마나 가엾고 힘들까? 생각이 들었다. 정말 좋해서 수술적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환자였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어린 소녀는 집밖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가 수술할 환자 모두가 이런 환자다. 가엾다. 상태가 심한 환자들이 많아 수술 시간이 길어져 늦은 밤까지 수술을 했지만 어찌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수술장을 담당하고 있어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를 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수술이 없어 회진에 동참하였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울어 대지만 부모들의 표정은 밝았다. 모두들 감사하다며 서로서로 사진을 찍으며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큰일을 해 낸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열흘간의 일정을 함께 하면서 각각의 개인에게 배울 점도 많았던 시간이었고, 또한 젊은 시절에 소망하던 것 중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낀다. 끝으로 바기오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론기사, 광고, 후원자

# 인공와우 이식 성공률 96%, 합병증 0건 ... 세계 톱5가 목표

## 아주대병원 아주난청센터

초보 엄마 이연정(가명·33·경기도 수원)씨. 첫 아기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고도난청 장애로 진단받았다. 생후 5개월 때의 일이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고, 웅얼거리는 낮은 이유도 이해가 됐다. 연정씨의 아기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양쪽 귀에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았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 현재 청력이 회복돼 언어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제 이름을 듣고 반응하거나 단어를 말할 수 있다.

고도 난청환자는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 세포가 손상돼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 이런 환자는 인공와우 삽입술과 언어재활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인공와우는 망가지는 청각세포를 대신해 신경세포를 자극하면서 소리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아주대병원 아주난청센터 정연훈 센터장은 "선천성 난청환자라도 7세 이전에 수술을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아주난청센터는 귀 분야에서 국내 대학병원을 선도하고 있다. 보청기를 사용해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중증 난청환자의 청력을 회복시켜주는 데 강점이 있다. 인공 와우이식술은 현대의학의 결정체다. 수준 높은 의료기술·숙련된 의료진·환자 맞춤형 관리 등 3박자가 잘 맞아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세계이비인후과외과학회 정회원 2명이 직접 이식 아주난청센터 인공와우 이식술의 특징은 최소 침습이다. 청각세포와 청신경의 손상을 줄여 남아있는 청력을 최대한 보존한다. 국내에서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정원장을 통해 전극을 삽입하는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했다.

정원장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과 관련된 않은 막이다. 이곳에 전극을 삽입해 잔존 청력 보존율을 90%로 높인다. 청신경 손상을 줄여 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술이 까다로운 대학병원 중에서도 시술하는 곳이 드물다.

수준 높은 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국내에서 4명뿐인 세계이비인후과외과학회(CORLAS)의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귀전문가가 아주대병원에는 두 명이나 있다. 바로 아주난청센터의 수장인 정연훈 센터장과 박기현 교수다. 정 센터장은 국제학회에서 더 인정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는 아시아-태평양 인공와우 국제학회

에, 올해는 대한이과학회의 연자로 초청받았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큰 시립병원인 중앙병원 이비인후과의 초청으로 인공와우 이식술 2건을 시연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우수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국제논문(SCI·과학인용색인)도 최근 3년간·33건을 발표했다.

이들의 치료 성적은 더 놀랍다. 지난달까지 아주난청센터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환자는 206명이다. 최근 5년간 보고된 합병증은 0건, 수술 성공률은 96.6%다. 국내 최고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평균적 청력은 수술 전 환경음을 인식하는 정도(1단계)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아는 인공와우 이식 3년째가 되면 독화(입술로 말을 읽는 것) 없이 대화를 이해하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정도(6~7단계)까지 호전됐다. 후천성 난청인 성인인 3개월이면 회복된다.

국내 최초 소이증 환자 인공 귀 재건술 개발 인공와우 환자가 평생관리를 받는 시스템도 매력적이다. 인공와우 이식술은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 최소 5~7년간 단계적으로 언어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주난청센터는 7명의 언어치료사가 2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언어치료를 한다.

또 전문 의료진·청각사·언어치료사·어지럼증 검사사·인지기능 검사사·코디네이터가 매달 두 차례 모여 진단부터 치료·재활 계획을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한다. 2003년부터는 매년 인공 와우 캠프를 개최하며 평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초 및 임상연구에 집중하는 점도 이목을 끈다. 현재 아주난청센터는 난청 관련 특허(5종)와 기초 고유기술(2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엔 5년간 난청관련 기초 연구(10건)를 수행했다. 또 국내외 학회에서 '우수 연구'를 4차례나 시상하면서 이 분야 최고의 기초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정연훈 센터장은 국내 이비인후과 최초로 소이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이용해 인공 귀 재건술(일명 정 치료법)을 개발했다. 또 돌발성 난청환자의 스테로이드 치료 프로토콜을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어지럼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머리속안·젖힘 진단법(정 진단법)을 개발해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금도 만성중이염·이동성 난청에 대해 연구 중이다.

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아주대병원 정연훈 아주난청센터장(왼쪽)과 언어치료사(오른쪽)가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16개월된 아기에 언어치료를 하고 있다.

### 인터뷰 정연훈 아주난청센터장

-특별한 이력이 있다고 들었다.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아주대에 편입해 이비인후과와 치과외과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원래 약안면 두경부외과에 관심이 있어 의대에 편입했다. 하지만 지금 센터에 같이 일하시는 박기현 교수님의 조언으로 귀 전문의의 길을 걷게 됐다. 예상치 않았지만 어 느 분야보다 재미있고, 연구·진료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 즐겁게 일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경험은.

"전혀 듣지 못하던 사람이 소리를 듣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그중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평생 수화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기적이다. 생후 3개월에 난청진단을 받고 평생 울던 엄마가 인공와우 이식을 받고 3년이 지나 진료실에 와서는 아이 잔소리가 심하다고 불평할 때, 인공와우 이식 후에 자신이 새소리에 새벽잠을 깬다고 신기해하는 어르신의 미소를 볼 때·온몸에 전율이 온다."

▲ 중앙일보, w4, 2012. 4. 17 한국얼굴기형환자 기획이시인 정연훈 아주대 이비인후과 교수의 기사입니다.

### 아주대병원 아주난청센터

개소일	2002년
센터 규모	이비인후과 환자 전용 30 병상
연간 진료 환자	외래환자 약 2만 5000명
진료 실적	수술건수 약 2000건
주요 의료진	▶ 이과=정연훈 센터장(인공와우 및 난청, 두개저 수술), 박기현(진주증 질환 및 중이수술), 박현이(중이염 수술 및 어지럼증·이명), 임혜진(난청·중이염·어지럼증) ▶ 전담 인력=코디네이터 1명, 인공와우 수술 전문 간호사 3명, 외래 간호사 7명, 청각사 3명, 언어치료사 2명, 전담기능 검사 2명, 인지기능 검사 1명 ▶ 협진 인력=타과 임상교수 8명, 기초연구 교수 14명, 언어치료사 5명
특화 진료 분야	인공와우 클리닉, 난청 클리닉, 보청기 클리닉, 어지럼 클리닉
첨단 장비	난청 진단 첨단기기 ASSR, 소음 하 청력검사기 HINT, 3차원 회전 의자(OVAR / 아시아에서 유일) 및 CHAMP, 전정기능검사기 등

-아주난청센터의 향후 계획은.  
"10년 안에 '세계 톱5'에 드는 전문난청센터로 거듭나겠다. K-pop부터 드라마·영화·음식·관광·언어에 이르기까지 한류 열풍이 거세다. 그 다음은 의뢰다. 국내 의학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몇 년 안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주난청센터는 국내 최고의 난청·인공와우 센터라고 자부한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 중·단기 계획을 세워 첨단 기초 연구와 미래형 환자관리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 후원자(신규)



경기여고 63회 졸업생 동기 모임인 '용달샘'(회장 장춘애)은 매년 백 오십만원을 본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에 후원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첫 번째 수혜자로 소녀가장자로 밝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김유민 학생에게 돌아 갔다. 김유민 학생(사진, 14세)은 2012년 7월 25일 구순구개열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다.

후원자명단 (년 오십만원 이상)

김성민, 김은석, 면사랑, 박미애, 박현숙, 알파덴트, 용달샘, 이정숙, 코스닥협회, 흥석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 치의 봉사의지 빛났다

### 얼굴기형환자후원회, 태풍속 필리핀 진료봉사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태풍도 한국 치과의사들의 봉사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이사장 정필훈, 이하 후원회)는 지난 달 21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의 서부부도시 바기오에 위치한 바기오 종합병원(Baguio General Hospital and Medical Center)에서 19명의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대상으로 21번째 해외 무료수술 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2차례씩 해외의료봉사를 시행해온 정필훈 서울대 치의대학원 교수 등 후원회 봉사단은 파키스탄, 인도, 케냐, 에티오피아, 라오스, 베트남, 중국, 이집트 등 10개국을 찾아 얼굴기형환자의 재활을 지원한바 있다.

마소사랑 후원회와 다이나믹크리스천 세계선교재단, 필리핀 적십자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무료수술 봉사에는 단장인 정필훈 교수(서울대 치의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를 비롯해 이원 교수(카톨릭의대 구강악안면외과), 박주영 전임의, 김수호 수련의(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정한울 전문의, 김혁수(서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진료봉사단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바기오 종합병원에서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 봉사를 진행하였다.

울대 치의대학원), 박해정, 안태민 수술장 간호사 등이 참여했다. 특히 필리핀 방송사 ABS CBN가 한국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의 이번 봉사활동을 저녁 시간대에 보도해 주목을 받았다. 또 진료단은 현지에서 2개의 태풍이 발생하는 악천후 속에서 귀국했다.

윤선영 기자

▲ 치의신보, p42, 2011. 9. 19, 제1969호 제21차 필리핀 무료수술봉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 저를 도와주세요

**Walang Batang Dapat Magdusa Nang Dahil Sa Bingot**

Ang DCWMF ay nagbibigay ng libreng operasyon para sa mga batang may bingot(cleft lip) at naongo(cleft palate).

Mag text o tumawag sa DCWMF.

저희 제단에서는 2011년도에 만년기령 아이들 20여명을 무료로 수술해 주었으며, 오는 7월 5일부터 16일까지 40여명의 아이들을 수술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00분의 후원금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후원계좌: 620-160337-861 (최철호 명 (계급주 박경배))

Dynamic Christian World Mission Foundation, U.S.A.  
Phil's Representative  
Chief President Rev. Andrew (JeongBox) Park (D.Miss)  
cafe.daum.net/dcandc HP. 0906 239 5533, 070 4069 5909

▲ 광고(필리핀 의료봉사 모금 광고)





##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 /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얼굴기형환자를 무료로 수술해 드립니다)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와 부설기관인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KARC)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학장 역임)인 정필훈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1998년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주축이 되어 각자 호주머니 돈으로 환자들을 직접 시술해 오다가 그 후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마취과,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사회의 각계인사들과 따뜻한 분들이 모여 얼굴기형환자를 돕고자 2002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비영리단체입니다.

2002년 6월 파키스탄 구순구개열(언청이)환자 무료수술을 시작으로 2011년 8월 필리핀 바기오 시에서의 무료수술 봉사까지 총21회에 걸쳐 10년간 해외봉사를 하여 총452명(2012년3월 기준)환자들을 수술해 주었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처럼 에이즈 환자가 많은 나라에서도 한 번 해외봉사를 가면 매년 약 30명 이상의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수술해 주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수술실 여건상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주로 수술해 주지만 국내에서는 구순구개열뿐만 아니라 턱, 얼굴, 두개골과 얼굴기형을 동반하는 증후군(에이퍼트증후군, 크루존증후군 등)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과 정신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히, 얼굴기형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수술하기 힘들고 사회에 소외되는 국내 환자들을 우선으로 도와주고 있으며 다른 봉사단체의 치료 요청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파키스탄, 이집트, 중국, 케냐, 인도, 베트남, 에티오피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네팔, 필리핀 등에서 현지 구순구개열 무료수술을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북한 동포에 대한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원합니다.

### 주요사업

- 국내외 얼굴기형환자 무료상담, 무료수술, 의료봉사사업
- 각 단체 후원금 모금 활동 및 의료봉사사업(미소사랑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의료지원재단 등)
- 턱, 얼굴기형에 대한 학술연구 교류 및 수술법 개발 사업
- 해외무료수술봉사 1~2회/년(1회 평균 약25명 수술)
  - 파키스탄, 이집트, 중국연변, 캄보디아, 베트남, 요르단, 케냐, 인도, 에티오피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네팔, 필리핀
- 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금 운동 및 사업 기획

### 환자후원방법

- 후원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19-811730, 예금주 :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
- CMS출금 자동이체 후원(월1회, 1구좌(일만원)이상) : 전화/팩스로 신청서 접수
- 현물, 의료용품, 문구류 등 후원 : 사무국에서 접수( 전화/팩스 02-740-8725)
- 후원하신 후원금은 세법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수술신청

- 서류 :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홈페이지([www.goodface.net](http://www.goodface.net))다운로드
- 범위 : 구순구개열, 각종 얼굴기형 증후군 환자(화상환자 제외-우측 사진 참조)
- 협찬 : 얼굴기형환자후원회, 미소사랑후원회, 후원회원
- 주소 : 110-768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임상교육연구동 739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 사무국(사무국장 M : 010-6213-4292)

1. 두개골 기형(예 : 크루존 증후군)      2. 구순구개열



3. 귀 기형을 포함하는 얼굴기형      4. 중안모 함몰 기형



5. 얼굴 비대칭      6. 무턱



7. 광대뼈기형      8. 주걱턱기형



한 국가의 얼굴기형환자들이 계속 무료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줄 단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